

조국의령해는파도친다



조선인민군해군군부대를시찰하시는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 멀고 험한 전진길, 파도치는 바다에 나선 령장의 모습은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해 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 이곳 해군부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잠수함부대였다. 그날 수중종합훈련실에서 군부대 해병들의 실내훈련도 보아주시고 직접 잠수함 748호에

오르시어 실동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는 최상의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시고 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작전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제시하시었다. 모든 해병들을 만능해병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여드는 적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절하느라고

하시는데 그이의 군엄하신 영상은 만약 침략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토와 평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지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전으로 넘어가 조국통일대전에로 이어갈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모습그대로였다. 주체101(2012)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한 적들이 다시 벌리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전야에 27IP의

작은 목선으로 장제도와 무도에 대한 시찰을 단행하시어 오만한 적의 말없는 청도 들어주는 원수님이시었다. 당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인 《자유민보》는 《〈로-동-82531호〉 목선이 말해주는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평했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라고 서해 최전선으로 나아가간 27IP짜리 작은 목선은 원자로 2기와 초대형 중기타인 4대로 움직이는 핵

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침입을 꺾을수 있다는 담력과 배짱의 상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소 잠수함 748호에 오르시어 파도를 헤가르며 나아가는 함의 침로도 정해주시고 항해술에서 나서는 묘술도 가르쳐주시면서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미더운 해병들에게 힘과 용량을 안겨주시는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연합뉴스》, 《KBS》, 《노컷뉴스》,

《뉴스시》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제1위원장 잠수함부대 시찰, 잠수함 직접 탑승》, 《김정은제1위원장 잠수함부대 올라 직접 해상훈련 지휘》, 《김정은제1위원장 려인은 군시찰 군사력 과시》 등의 표제 밑에 놀라움과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잠수함부대시찰소식을 영상사진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번에 단행하신 잠수함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은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불안을 주는 력사적인 군부대시찰인 것이다. 만약 이제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 원수의 함선들이 조국의 평해에 기여든다면 침략자들은 영원히 성난 조식의 파도속에 통째로 수장되고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그날은 국제아동절날이였다.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과 혜택속에 성장하는 평양에육원 원아들도 명철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부모의 정을 그러는 원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6.1절의 그날에육원을 찾으신것이였다. 명절날에 원아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았는가?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 얼굴에 한점 그늘이라도 지지 않았을가?...

몰아치던 시기 난관들과의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실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마음 제일 가까이에도 부모님은 아이들이 있었다. 어느해 겨울 한 옥아원에 빨갛고 식료품이 넉넉히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아시고는 마음에 걸리시어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기도 하시고 얼마 안되는 자금을

이것께서는 원아들이 뛰는 유희실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아버지!》 아직은 자기들의 감정과 의사를 언어에 충분히 담지 못하는 아이들이였건만 저저마다 반기며 그이께 달려와 안기었다. 《원수님, 안아주세요.》 음성속을 부르며 원수님의

자기들의 노래솜씨를 보여드리는 원아들에게 박수도 쳐주시고 투쟁을 벗겨달라고 요그르트를 내미는 아이들이었다. 지난 2월보다 아이들의 얼굴이 촉각지 않았는가를 알게해주시고 하시고 한 어린이의 입안까지 들여다보시며 원아들의 구강위생에 이르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밝아진다고, 아이들을 털끝만 한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원아들이 부모모는 설움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었다. 원아들에 대한 원수님의 사랑은 그뿐이 아니였다. 이들을돌보는 평고기료리와 골완자랑, 꿀찰떡, 칠색송어편퇴기를 비롯한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아이들의 식탁 위에 올랐다. 6.1절을 맞으며 전국의 육아원, 육육원, 초등 및 중등 어린이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첫물도마도와 갖가지 물고기들이 차례였다. 하기에 초등학원의 한 원아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시를 읊었던것이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이품에 생을 의탁하고 운명도 미래도 맡기었기에 이 땅에 부모없는 아이는 없다.

본사기자 리경월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시간

원아들에 대한 격정을 안으신채 육육원을 찾으신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진 사랑하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혈전의 그 나날 마안산밀영에서 굶주리고 험한 아이들의 정상을 보시고 강변서머머의 따스한 체온이 스며있는 귀중한 돈 20원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시었다. 조국에 시련의 칼바람이

쓰는데도 수십번의 타산과 선택을 해야 했던 그때에도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난방보장체제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식량으로부터 부식물과 영양식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보장대책을 취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었다. 한평생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를 창조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열과 정을 다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평양에 육육원이었다.

옷자락을 잡고 자리다툼하는 원아들에게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하시며 아이들의 귀여운 불을 다독여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부모와도 같은 친근하고 살뜰한 모습이었다. 손가락을 쏘아가며 자기들이 먹은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자랑하는 원아들의 모양을 환하진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명절을 잘 쇠고있더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었다.

까지 세세히 보살피신 그이의 다심한 정과 한데 어울린 원아들의 행복스런 모양은 환하진 한가정의 광경을 방불케 하였다.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것까지 보고 가셨다고 하시며 식당에도 둘러서서 숟가락이 어느 음식에 먼저 가는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가를 헤아리기도 하시고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아주시며 원아들에게 잘 먹여 좋아했다는것을 아시고는 못내 기뻐하시었다.

령도자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가 나날이 향상되어가고있다. 령도자가 유희장을 리용할 인민의 안전을 위해 유희기구를 먼저 리용해보고 완공을 앞둔 스키장도 찾아 사도도 먼저 타보며 인민들의 복리와 편의에 사소한 흠도 있을세라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것이 오늘 조국의 현실이다.

공장과 농촌의 일터와 마을로 부러 산간벽지의 외진 동네나 섬 초소마을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끊임없이 새겨지고있다.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두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최근 몇해어간에 만도 인민을 위해 수많은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자식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력마도 건설하도록 하시고 마식령지구의 스키장과 같은 종합적인 체육문화관광기지도 꾸리도록 하신 원수님이시었다.

그런데도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령도자를 따르고 만드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는 강성국가를 떠받드는 뿌리가 되어 이 땅에 만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할것이다. 고종혁

《조국에 바친 값없는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이다. 뜨거운 애국심을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들이 운데는 재능있는 어학자 김병제 선생도 있었다. 봄빛이 질어가고있던 1949년 4월 어느날이였다. 새 조국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중시하시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있는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를 맡고있던 김병제선생의 집으로 찾아가셨다.

그날은 란암속에서도 민족어고수투쟁을 멈추지 않은 김병제선생은 마침내 1948년 7월 북으로 오게 되었고 대학의 교단에 서게 된것이였다. 그의 서재에서 어학과 관련한 서적들을 손수 뽑아드시고 갈피갈피 페이지를 번지시던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은 일본놈들이 없애버리려 하던 그 조선말을 배워준다는 데 참 좋은 일이라고, 일본놈들은 조선말을 배우지 못하게 해서 어문학자들이나 겨우 조선말을 연구했지 다른 사람들을 조선말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배우고 또 배워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나라 말을 툭툭히 알도록

결머지시고 준엄한 반미성정을 이끄시는 속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사려깊은 교정지도를 친히 보아주시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문건과도 같이 중히 보관하셨다가 어학자들에게 돌려주셨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적 절한 전시에 기밀문건도 아닌 조선말사전교정지를 그렇듯 귀중히 여기신 수령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보살핌이 있어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말사전이 나오게 되었다.

인민이따르는 령도자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최근 몇해어간에 만도 인민을 위해 수많은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자식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력마도 건설하도록 하시고 마식령지구의 스키장과 같은 종합적인 체육문화관광기지도 꾸리도록 하신 원수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전문병원을 세우도록 하시고 의료실비들의 가동정형과 치료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어 병원을 찾으시고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우리 인민들이 건

강하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었다. 이런 령도자를 모시어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 넘치고 세세년년 풀어온 꿈과 리상들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이 원수님을 뵈오며 어찌 우리 령도자라 부르며 따르고 신뢰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인민의 다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마음은 억지로 지울수 없고 더우기 강요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진실한 감정의 분출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을 함부로 걸고들면서 《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느니, 《금편사태》이니 뭐니 하며 꾀변을 늘어놓아도 인민의 반석같은 지지에 떠받들려있는 공화국의 영성을 흐리게 할수는 없다. 공화국을 알자면 인민들이 자기의 령도자를 뵈을 때 더치는 진실하고 뜨거운 모습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하기에 남조선인론들도 《김정은제1위원장의 천서민적인 행보는 매력적이고 여유있고 자신만만 한 모습이며 대중과 함께 있는 마사롭고 친근한 모습으로서 령도자로서의 완벽함과 인속함을 보여주고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 소식을 전하였다.

인덕으로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령도자를 따르고 만드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는 강성국가를 떠받드는 뿌리가 되어 이 땅에 만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할것이다. 고종혁

《조국에 바친 값없는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이다. 뜨거운 애국심을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들이 운데는 재능있는 어학자 김병제 선생도 있었다. 봄빛이 질어가고있던 1949년 4월 어느날이였다. 새 조국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중시하시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있는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를 맡고있던 김병제선생의 집으로 찾아가셨다.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다심히 보살펴주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대학교원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선생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업을 잘해야 새 사회를 건설할 훌륭한 민족간부들을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덕망에 감복을 금치 못하는 그에게는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고매했다. 그는 서울에서 조선어학회 상임리사로 있으면서 조선말사전 편찬과 조선어교원육성에 심혼을 바쳤다. 연희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교단에서 우리 말연구보급과 민족어고수운동에 적극 벌린 그였다. 당시 남조선에 가로타고있을 미군정은 민족말살정책을 펴면서 조선민족의 고유한 말과 글을 없애려고 악랄하게 획책했다. 영어를 공용어로 내버려먹었고 정계와 학계에서는 영어를 알아야 《출세》의 길이 열렸다. 공문서에 영어로 된 표기가 있어야 효력을 보았다.

한 어학자가 걸어온 길

수령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에게는 해방전 피눈물로 얼룩졌던 탐구와 학업의 나날들이 어찌일치떨어왔다. 1905년 8월 경상북도 경주시 상록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어려서부터 문에 뜻을 두었다. 유년시절 서당에서 글을 익힌 후 대부보통학교를 나오고 서울보성중학교를 마친 그는 고향에서 축락교원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글짓기를 했다. 그때에 그는 리기영, 송영, 박세영 등 《카프》작가들과 친교를 두리이하면서 창작에 전념했다. 그 시절에 《문학상평면과 립체적 견해》, 《문제의 소재와 이동을 읽고》와 같은 글을 신문지상에 냈고 《떨어진 팔》, 《대변자》

회의 일원이 되어 민족어고수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1940년 가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일제에게 체포투옥되어 옥살이를 했지만 갖은 악행을 당하면서도 반일의지를 굽히지 않은 그였다. 그날 눈물겨운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자기의 심중을 헤아리시며 앞으로 우리 말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말의 가치를 높여 줄 것을 의탁하고 운명도 미래도 맡기었기에 이 땅에 부모없는 아이는 없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김병제선생을 비롯한 어학자들을 만나시고 랑시적인 조선사람치고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이 없어지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김병제선생은 민족어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살려나갈 때 민족적전통과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민족문화의 자주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는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됐다. 조선어학술연구활동의 나날 그는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울데

본사기자 리설